

# 북한개발소식

# 07

2019 July

통권 165호

| 이달의 주제 |

통일선교와 이단문제



월간

# 북한개발소식 2019 July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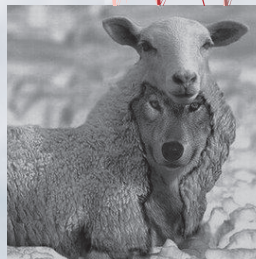
이달의 주제 :

통일선교와 이단문제



01

권두칼럼  
통일선교와 이단문제



09

칼럼 1· 김정수  
북한에 문 두드리는 이단,  
이단 문을 두드리는 탈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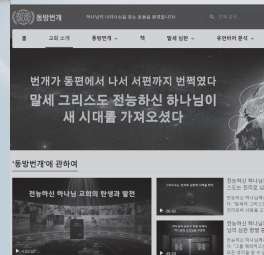
14

칼럼 2· 임창호  
탈북민들이 이단자들에게  
흡수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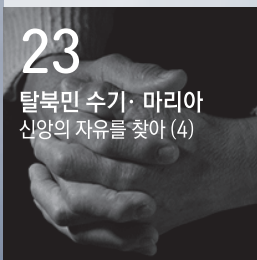
18

칼럼 3· 김 아모스  
중국교회 이단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  
자칭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全能神教)



23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4)



29

북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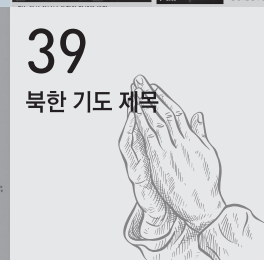
37

서평 북한선교개론  
북한선교개론 정종기 저



39

북한 기도 제목



# 통일선교와 이단문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해왔다. 특히 한국은 다양한 이단의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천지로 인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현재도 계속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 이단-사이비세력들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의 역사와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들의 활동은 정통교회가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과 일치한다. 더군다나 공격성과 열정에 있어서 이단-사이비 종파는 정통교회를 앞선다. 현재 한국교회 최대의 화두인 통일과 북한선교에 있어서도 이들 이단-사이비 종파는 정통교회를 능가하는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최근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른 교류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단들은 적극적으로 북한 포교 및 통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 12월 23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88)는 청주에서 열린 모 지파 수료식에서 위장 평화행사인 ‘만국회의’의 북한 개최설을 언급했다.<sup>1</sup> 이만희 씨는 “북한 당국이 15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대관을 허락했다”며 “통일부만 허락해 준다면 신천지 성도 20만명과 함께 9월 평양에서 (만국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통일교 측에서도 한학자 총재가 2020년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sup>2</sup>

한국에서 일어난 토종(?) 이단도 문제이지만 타국에서 발생한 이단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중국에서 일어난 신흥 이단 전능신교(동방번개) 신도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포교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 특히 이 이단은 중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조선족으로 중심으로 중국과 남한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는 북한 선교와 관련된 이단의 활동을 정리하고 갱신하는 차원에서 이단들의 북한 선교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북한사역과 기도동역자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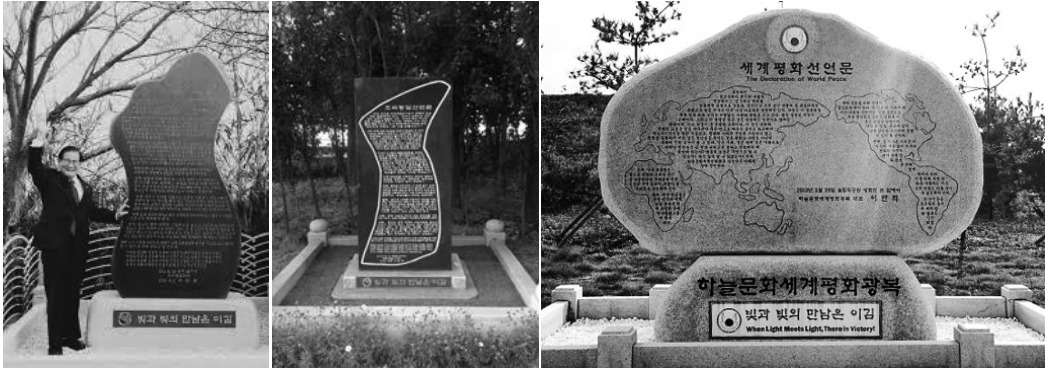
## 1. 신천지

최근 한국교회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

1 국민일보, “北선교 ‘이단·사이비’ 경계령… 조직적 침투 움직임”, 2019. 01. 14

2 MK뉴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내년 평양방문 준비… 김정은 이미 초청’, 2019. 05.08.





〈임진각에 2011년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좌)과 2018년 다시 세워진 모습(중). 위 비석에는 이만희씨가 2010년 신도들 앞에서 발표한 통일선언문 내용이 쓰여 있다. 세계평화선언문(우)은 위장 평화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름으로 신천지가 2013년 발표한 ‘세계평화선언문’이 새겨져 있다.〉

단은 이만희의 신천지이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신천지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들은 북한선교에도 계속해서 열심을 내왔다. 신천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신천지 언론사의 발표들 그리고 신천지 신자들의 페이스북 계정과 개인블로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북한선교와 중국선교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다.

신천지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해빙기가 찾아오자 관련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작년(2018년) 5월, 신천지 측은 위장 봉사단체 만남을 앞세워 임진각에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무단 설치했다. 이 비석은 지난 2010년, 임진각에 처음 세워졌으나 당시 토지의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를 허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철도공사는 파주시청과 협의해 비석을 철거했다.

비석에는 “종교인은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은 종교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비석 하단에는 조국통일선언

문을 발표한 주체를 국민대표 33인이라고 명시하고 대표 이만희라고 새겨두었다. 신천지는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비석 설명판을, 정상적으로 설치된 비석의 설명판과 동일하게 만들어 설치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뿐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철원 평화문화광장에도 신천지의 세계평화선언문 비석을 위장 평화단체 이름으로 설치한 것이 드러났으며, 고성 통일전망대에도 비슷한 이름의 비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sup>3</sup>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시기를 틈타 통일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사업을 추진하는 신천지의 행보를 주의해야 한다.

신천지는 단순히 상징적인 움직임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북한 선교 현장에서도 신천지의 활동이 여럿 포착되었다. 2011년 여름 연길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꽃제비를 성실히 돌보던 조선족 여집사가 물질적 후원을

3 국민일보, “신천지, 불법인줄 알면서 민통선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비석 알박기’”, 2018.11.28

고리로 신천지에 넘어가 아이들에게 신천지 교육을 하였다가 정체가 드러나 큰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었다. 연길시의 많은 삼자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에서부터 신천지에 빠져 포교의 사명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는 중국에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의 활동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교회도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변지역에서는 이단대처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공식적 기독교백과에서도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신천지는 중국 공안 당국에게도 요주의 단체로 인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년 8월에는 베이징 소재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개최하려던 이만희 교주에 대해 공안이 나서 행사를 중지시키기도 했고, 14년 12월에는 베이징에 있는 신천지 집회 장소 2 곳을 철거하고 더 이상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조선족과 중국 현지에서도 신천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선교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대종교에서는 조선족을 통해 북한선교라는 공감대로 접근한 신천지의 활동에 대해 기획 기사를 내기도 했다.<sup>5</sup> 최씨는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던 중 만난 조선족 언니를 통해 조선족 목사를 소개받았는데, 알고보니

이 목사가 신천지였던 것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의 행태는 향후 북한 선교와 통일 사역에 신천지가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제철일안식일교회(안식교)

안식교는 1904년에 한반도에 전래되었는데 전래당시 중심지가 진남포, 용강, 강서, 중화 등의 북한지역이었으며, 김일성의 고향 만경대의 남리마을에도 안식교회가 있었다. 이후로도 안식교는 남북분단 직전까지 평안도 순안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통교회와 마찬가지로 분단 이후로 김일성 정권의 핍박도 받았다. 안식교 내부에는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토요일 노동거부로 인해 안식교인들이 받은 핍박의 간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안식교는 아드라(ADRA, 삼육국제개발보호기구)를 통해 북한에 진출했다. 아드라는 안식교단의 국제구호단체로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지원을 해왔다. 아동영양지원, 에너지 개발, 병원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통천 폭발사고 때에는 병원 재건축에도 참여했으며, 또한 평양 빵공장 운영을 통해 영양강화 빵과 비스킷을 생산해 평양지역 학생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북한 외무성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간부들에게 모든 계획을 정리하라는 요청에 따라 아드라는 북한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 해빙기를 맞아 다시금 대북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18년 9월에는 아드라 주최로 국제 포럼을 열고 대북협력 사업 방향성을 모색

4 교회와 신앙, “중국 공안, 베이징 신천지 2곳 철거”, 2015. 01. 15.

5 현대종교, “북한선교 미끼로 포교하는 조선족 신천지”, 2016.10.10.

하기도 했다.<sup>6</sup>

아드라 코리아는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 및 해당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단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캠페인은 탈북민 및 탈북민 출신 청소년들도 주요 계층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식교는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재정과 사람 준비를 주요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이미 전 교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십일조의 1%를 북한선교를 위해 비축해왔는데, IMF 시기 등의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또한 북한개척선교사(NKPM) 교육 및 평신도 북한 선교사 훈련 등 선교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었다.<sup>7</sup> 안식교 국외 선교부는 19년 사업계획에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한선교 기반 조성’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sup>8</sup> 올 2월에는 국외선교회 내에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명선교회’ 첫 총회를 열고 탈북자 사역 및 앞으로의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회 및 북한선교보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안식교 재단은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육대의 보도에 따르면 18년 11월 삼육대와 평양과학기술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sup>9</sup>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공동연구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남북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을 대비해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인정 △교수나 교원 간의 교류 △대학시설 사용 △학술자료 및 출판물 교환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안식교 선교사의 활동이 종종 포착되곤 한다. 이전에 한 안식교 선교사가 안식교 한글신앙서적의 인쇄를 위해 연변지방의 인쇄소들을 수소문하는 것이 포착되기도 하였고, 본 선교회에서 양육하는 탈북 여성들에게 “주일에배는 가짜다, 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며 접촉을 시도한 선교사도 있었다.

특히 안식교는 희망의 소리 (Adventist World Radio, <http://www.awr.or.kr>) 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방송을 통한 북한 접근 및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한국 시각 오전 06:00 - 07:00와 저녁 21:00 - 22:00 씩 매일 2시간씩 단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지역 단파 라디오 보급을 위해 대당 1만원에서 2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하는 등 라디오를 통해 북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 위 라디오 방송을 북한 내에서 청취하였다는 증언도 확인되고 있다.

6 재림교회 블로그, “아드라, 국제 포럼 열고 대북협력 사업 방향성 모색”, 2018.09.17. <<http://blog.adventist.kr/아드라-국제-포럼-열고-대북협력-사업-방향성-모색>> (최종검색일 2019.06.20)

7 재림교회 블로그, “국제정세 급변하는데...” 북한선교 준비, 어디까지?”, 2018.11.28. <<http://blog.adventist.kr/국제정세-급변하는데-북한선교-준비-어디까지>> (최종 검색일: 2019. 06. 13)

8 재림교회 블로그, “국외선교부, ‘북한선교 활성화’ 등 올해 사업계획은?”, 2019. 02.27. <<http://blog.adventist.kr/국외선교부-북한선교-활성화-등-올해-사업계획은>> (최종 검색일: 2019. 06. 13)

9 온라인 중앙일보, “삼육대, 평양과학기술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2018.1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111577>> (최종검색일: 2019.06.19)

### 3. 전능신교 (동방번개)

최근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은 바로 전능신교다. 전능신교는 호함파(呼滅派)라는 위치만니의 영향을 받은 이단에서 활동하던 조유산(趙維山)에 의해 1990년에 시작된 또 다른 이단으로 알려져 있다. 전능신교는 하남성 낙양의 등(鄧)씨 성을 가진 한 여인을 ‘전능한 신’이라 불리는 ‘여자 그리스도’로 모시고 교주로 삼고 있다.<sup>10</sup> 동방번개는 조직적으로 기성 교회를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파괴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미 중국 내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중국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 전능신교 신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교주 조유산과 많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세계 각지로 도피했으며 신도 1,0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국내에는 단속을 피해 도피한 신도들 중 수백여 명의 신도들이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년을 기준으로 전능신교 신도 1,000여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신청만 하면 심사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무려 5-6년을 국내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외국인 출입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박해로 인해 중국 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단절서’라는 각서를 쓰고 가족과 단절하고 한국으로 가출하여 여러 피해 가족을 양산하고 있다.<sup>11</sup> 전능신교 내에는 별도

의 난민팀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제주도로 입국시켜 난민신청을 한 후 외국인 출입증을 받고 서울 등 지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구로동 본부를 비롯하여 군자동 애신교회, 구로구 궁동교회, 강원도 횡성 유스호스텔, 대전시 동구 상가건물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능신교의 국내 침투 실태 및 그 폐해와 관련하여 CBS에서 18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를 내보냈고, 다큐멘터리 ‘전능신교 가족의 눈물’을 같은 달 26일부터 다섯번에 걸쳐 방영한 바 있다.

전능신교는 단순히 국내 침투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도 포교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조선족 신도를 중심으로 북한 내 성도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며, 얼마나 퍼져있는지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sup>12</sup>

### 4. 통일교

한때 북한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는 비록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선명 사후 집안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학자 총재의 2020년 평양 방문을 준비

10 김중구, 『중국교회 이단 동방번개』,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1), 65-94.

11 기독교신문, “사이비에 빠진 남편은 난민이 아닙니다”, 2017.11.09.

12 국민일보, 19.02.14.





〈통일교 ‘2019 신통일한국 희망전진대회’ 행사 모습〉

하고 있으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18년도부터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주제로 ‘신통일한국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5월 17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선동·이철규 국회의원 등 40여개국 정계·종교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만여명이 참석하였다.<sup>13</sup>

기존 통일교에서 분리된 세력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문선명의 3남 문현진씨(GPF재단 이사장, UCI그룹 회장)는 ‘NGO 비정부기구’를 통한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통일천사)’이라는 단체를 세워 NGO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통일천사는 2015년 중도 보수 성향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1100여 개와 함께 새시대통일의노래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통일 캠페인을 벌였다. 15년 10월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One K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의 관중이 모여들기도 했다.<sup>14</sup> 원 케이 콘서트의 전야제 성격으로 열린 통일실천지도자회의에서는 문현진 GPF의장이 주제 강연을 했고 감사패를 증정받기도 했다.<sup>15</sup> 통일천사의 ‘One K 글로벌 캠페인’은 2015년 이후에도 격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17년에는 마닐라에서, 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콘서트가 열렸다. 서울 시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1만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문현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안 드림’이란 통일 비전을 설파했다.

문현진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통일교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통일 활동이 자신의 아버지 문선명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평화 및 통일운동가로서의 문선명을 부각시켰다.<sup>16</sup> 비록 해당 단체와 행사가 특별한 종교색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13 연합뉴스, “통일교,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희망전진대회 열어”, 2019.05.17.

14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gpfkorea.org/?p=11457>>

15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united.kr/?p=2212>>

16 한국일보, “[사이드 스테이지] ‘통일교 황태자’서 통일운동가로…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2015.10.10





ONK K 2019 콘서트 포스터 (좌)와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GPF) 의장 (우)

“신 아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 이라는 통일교의 사상을 암시하는 구호 아래 문선명을 평화와 통일의 사도로서 계승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 5. 기타 이단 활동

국내입북 탈북민들에 대해 가장 왕성한 사역을 펼치는 이단은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이다. 만민중앙교회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탈북자에게 월 단위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김치, 쌀, 김 등 부식물도 제공한다. 다만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지원금은 없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수백여명의 탈북자들이 매주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탈북자사역을 하는 몇몇 교회에는 “만민중앙교회에서 몇만원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 당신네 교회로 가면 한 달에 얼마나 줄 수 있냐?”는 문의도 있었고, 또 한 탈북

민 교회 성도는 어머니는 매달 돈을 주는 만민중앙교회로, 딸은 일반 탈북민 교회로 나눠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탈북민 목회자는 전도하고 양육한 탈북민 성도 상당수가 매주 잘 출석을 하다가도 만민중앙교회(이단)에서 돈을 주자 서슴없이 간다 온다 말조차 없이 떠나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쁜소식 선교회 박옥수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나를 끌고가는 너는 누구냐?”에서 북한선교와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인쇄 판매되고 있다. 박옥수는 2012년 1월 9일의 설교에서 그의 저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일만권 인쇄하여 중국인 신자들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한 인쇄비용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1만권 인쇄와 배포는 사실로 보인다. 그의 책은 최근에만 탈북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에도 특수하게 인쇄된 그의 책이 연변지역에서 다수 목격되

17 현대종교, “북한이탈주민 미혹하는 이단들”, 2017.04.03

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북한으로도 그 책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유명한 간첩출신 김신조는 알려진 바대로 베뢰아(김기동)서울 성락교회 목사이다. 김신조씨 이외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김기동의 서울 성락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성락교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북한선교와 관련된 활동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 본 연구소가 수집한 베뢰아 내부문서에 따르면 2005년 중국 모지역에 개척된 교회를 통해 북한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교회는 북한에 베뢰아의 신앙서적을 유입시키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다락방의 대규모 북한사역도 확인되었다.

## 우리의 대응

북한선교현장에서 이단의 활동 역사는 정통교회의 북한선교역사에 뒤지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미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등의 이단은 중국내 탈북자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며 이재록, 이요한, 박무수, 박옥수, 이초석, 안상홍증인회 등이 중국 탈북자 현장에서 목격되어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교회 자체의 이단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북한선교 현장에서 이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단들은 중국내 탈북자, 월경자 전도는 물론 그들을 교육하여 북한 내부로의 포교를 시도하고 이단서적을 들여보내기도 했다. 정통교회와 교리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이단들은 그나마 구분하기 쉬우나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의 한 종

파 혹은 새로운 운동 정도로 이해되어왔다. 중국 및 남한의 조선족들이나 남한에 온 탈북자들도 이단에 노출되고 미혹받는 일이 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계속된 정보수집과 공유가 이단의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국 및 남한 내 탈북자 및 조선족들은 북한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단의 포교를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불신자가 아닌 기성 교회를 침투하여 미혹하고자 하는 만큼, 교회들의 깨어있는 자세와 확고한 신앙관 확립,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단의 활동에 교회와 선교현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북한에 문 두드리는 이단, 이단 문을 두드리는 탈북민

김정수 (현대종교 편집부장)

북한 문을 두드리며 직접 들어가 포교하는 이단의 모습은 개신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전략이 뛰어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북한 사업과 끈끈한 관계, 재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안식교)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물몬교)의 구호 활동이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이단의 관심도 각별하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탈북민은 3만 2476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개신교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탈북민을 포교하는 이단으로 인해 미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이단들의 북한 선교, 사업과 구호 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을 분석했다. 북한에 관심이 가장 많은 종교는 단연 개신교였다. 북한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수가 월등히 많았다. 총 80개의 종교계 통일부 허가법인 중에 개신교는 65곳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불교로 7곳의 허가법인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통일교가 4곳이나 있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한국글로벌피스재단 등 네 곳이다. 대북지원지정단체도 종교계의 경우, 38곳 중에 개신교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교도 1곳의 단체가 있었는데, 평화대사협의회

다. 한반도 정세, 동북아평화, 한일해저터널 등 학술토론회 개최하기도 하고, 탈북민과 송년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다.<sup>1</sup> 이처럼 개신교가 북한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나, 전체 규모를 생각한다면 통일교와 관심이 상당하다. 국내에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세우고, 국내외로 북한과의 접촉과 긴밀한 연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북한 진출은 어떤 단체보다도 빠르고 전략적이었다. 이미 북한에 세운 통일교

1 김정수, “멈추지 않는 통일교의 대북 진출”, 「현대종교」, 2019년 3월호 43~44



〈평양 평천구역 안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4천620㎡, 1천 400평) 규모로 세워진 세계평화센터 준공식 모습〉

사업체만 보더라도 북한 내 통일교의 위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문선명 생가를 복원한 정주평화공원을 비롯해 평화항공여행사, 평화무역, 보통강호텔, 세계평화센터 등 북한에서 통일교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 최초의 합영기업인 평화자동차를 2013년 말 북한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대신 통일교가 관심을 보이는 유통업 설립에 북한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북한 내 통일교의 입지가 더 확고해질 전망이다.

통일교는 사업뿐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입지도 제법 탄탄하다. 통일교가 건축한 평양세계평화센터 내에 통일교 공식 교회인 평양 가정연합교회가 들어서 있다. 실제 통일교라는 종교단체를 북한에서 인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다. 통일교를 정통 기독교로 알고 있을 정도다. 북한은 기존의 정통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통일교 측에서 보전, 복지, 식량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왔다. 또 여러 가지 대북사업을 통해 북한 경제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sup>2</sup> 매년 문선명 생일에 산삼, 풍산개 등 통일교에 선물을 보내왔던 북한의 모습은

통일교와 막역한 사이임을 가늠할 수 있다.

몰몬교는 구호사업을 통해 북한에 진출했다. 특히 황해도 과일군(郡)에 사과농장이 운영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 몰몬교의 사과나무 묘목 지원은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머시코(Mercy Corps)의 대북지원과 협력해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북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오다 2000년 봄부터 사과나무 1만 그루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만 그루씩 지금까지 모두 수십만 그루의 사과나무를 황해도 과일군으로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황해남도 해주의 소아병원 등 다섯 개 병원에 발전기를 비롯해 초음파기와 X-촬영기 등을 설치하고 기술적 자문을 해 왔다.<sup>3</sup>

북한 내 안식교의 시작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식교 선교사들에 의해 개신교 성도들이 개종하면서부터다. 안식교도 북한에 필요한 구호 활동으로 접근했다. 안식교 유관단체인 국제구호단체 아드라(ADRA)를 통해 대북 사역에 진출했다. 1999년부터 스위스 직원 5명이 평양에 상주하면서 2005년 북한 정부가 모든 NGO 단체의 철수를 통보할 때까지 구호 활동을 지속했다. 안식교 홈페이지 재림마을에 따르면, 2004년 당시 한 해 동안만 칼슘 강화 빵 990만 개를 만들어 369곳의 유치원 어린이 2만여 명에게 매일 두 개씩 제공했다. 같은 해 룡천역 대규모 폭발사고 시 병원 재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하루 5t 분량의 영양강화 빵과 비스킷을 생산해 평양 인근의 학생들에게 공급했다. 그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태양열 전기 공급 등

2 최재영,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동연, 2019), 265

3 같은 책, 464~465



북한에 필요한 구호 활동을 진행해 왔다.

안식교는 국내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작년 말 북한 개척선교사 1기(21명)를 배출했다. 2년 과정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북한 선교의 교두보가 되길 준비할 것이다. 올해 초 북한 개척선교사 2기(24명)를 모집하며 북한 선교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탈북민, 평신도와 청년선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물질적인 부분도 준비한다. 안식교 내에 들어오는 십일조의 1%를 북한 선교를 위해 따로 모아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안식교는 2018년 9월 현재 북한 신도 수가 86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탈북민 포교 방법, 공동체와 돈

탈북민들을 위한 선교 및 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종교는 개신교다.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24』에 의하면, 탈북민의 개신교 비율이 무려 46.9%다. 이 통계에 이단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단들은 탈북민 포교에 힘쓰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탈북민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단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첫째는 이단 교회에 탈북민이 많다는 점이다. 탈북민 예배를 따로 드리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고, 낯잡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생활고를 겪는 탈북민들에게 물질의 도움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셋째는 이단에 대한 분별이 부족하

다는 점이다. 탈북민들은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이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교회든 상관없다고 여긴다. 이것도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탈북민들은 주로 만민중앙교회(이재록)와 사랑하는교회(변승우)를 다녔다고 말했다. 공통적인 것은 탈북민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민중앙교회를 6년간 출석했다는 A씨의 경우 당시 탈북민이 400명 정도였다고 했고, 4년 정도 다녔다는 B씨가 출석할 때는 350명 정도였다고 전했다. 교회에서는 김치, 쌀, 김 등 부식물을 제공했고,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고백했다. 사랑하는교회를 출석했다는 C씨와 D씨는 당시 교회에 각각 130명, 5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월 교통비로 10만 원, 구정과 추석에는 각각 20만 원씩 지원받았다고 전했다.<sup>4</sup>

탈북민이 많다는 점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단 교회를 찾는 큰 이유가 된다. 몇 년만 기다리면 직업을 마련해주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허황한 감언이설에 속아 여전히 이단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서서히 이단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등의 문제로 탈퇴를 결심한다.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탈북민들은 교회를 선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이단들이 그들에게 꼭 맞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미혹하기 때

4 김정수, “북한이탈주민 미혹하는 이단들”, 「현대종교」, 2017년 4월호 21~23

문에 비교적 이단에 빠지기 쉽다.

안식교는 탈북민을 훈련시켜 북한 선교를 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안식교 내 탈북민 출신의 전도사는 한 언론에서 “자매결연, 후견인 등 탈북민에 대한 생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교단 차원에서 전도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면 선교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다”며 “북한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식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탈북민 교역자를 중심으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선교에 전략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

### 탈북민 이단 포교 대책

탈북민들이 이단에 빠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돈’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돈을 주는 곳이 이단임을 모르고 출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북민들에게 교회로 오라는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손으로 짚어가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연고지가 없는 이 땅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은 말할 것도 없다. 목숨 걸고 내려왔으나 다시 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탈북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탈북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것은 그들의 정착, 더 나아가 북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북한, 통일 그리고 평화

이단들은 북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펼친다. 자연스럽게 통일과 평화를 함께 외친다. 교리를 전하면 이단이라고 지탄받지만, 북한 선교와 통일, 평화를 외치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들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단어를 앞세워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 실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통일과 평화를 얼마나 염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단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신천지는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조국통일선언문을 세웠다. 파주 임진각에 국민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설치했다. 33인의 대표로 이만희 이름이 올려진 황당한 비석이다. 신천지가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도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불법으로 세워 철거된 바 있다.<sup>5</sup>



〈16년 9월 18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만희 대표) 주최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만국회의 2주년 기념 평화 축제’ 모습〉

5 장인희, “남북해빙기 이단들이 움직인다!”, 『현대종교』, 2018년 7/8월호 35~36

신천지는 평양에서 15만 명 규모의 만국회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청주에서 열린 한 지파의 수료식에서 신천지 위장행사인 ‘만국회의’를 북한에서 개최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씨는 수료식에서 “북한 당국이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대관을 허락했다”며 “통일부만 허락해 준다면 신천지 성도 20만 명과 함께 9월 평양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통일교도 방북 계획을 알렸다. 통일교는 지난 5월 "한학자 총재가 내년 평양을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 정초인 1월 1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이 이미 왔다"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안호열 가정연합 대외협력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평양을 소수가 가게 되면 약간은 정치적으로 유용되는 꼴이 될 수 있다. 우리 NGO(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에 참여하는 전 세계 국회의원 900명 정도가 같이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단들은 북한과 연결의 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에 직접 가는 것, 더 나아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북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이단들이 북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을 준다. 방북이 실현된다면 이단 단체의 주가는 상승하고, 이단이라는 꼬리표는 희미해질 것이다.

이단들은 일찍이 북한에 진출해 맞춤형 전략으로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북한에 필요한 구호활동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사업체를 통한 경제적, 기술적 도움은 북한 주민에게도



〈북한과 통일 이슈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확장하려는 이단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 개척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탈북민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선교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어 이미지 전환을 꾀하는 이단의 전략도 직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의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수박 겉 핥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당장의 결과물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과 탈북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현시대에 맞는 치밀한 전략, 장단기적인 계획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문이 열리는 날이 오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교회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 탈북민들이 이단자들에게 흡수되어가고 있다.<sup>1</sup>

임 창 호 (고신대학교 교학부총장, (재)북한인권과민주화운동연합 이사장)

## 한국교회에 의해 과소평가 되고 있는 탈북민

10년 전에 비해,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집회와 기도회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탈북민 강사들도 다양해졌다. 특히 한국의 달 6월과 8월 북한선교 관련 기도회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왕성해진다. 몇몇 스타급 탈북민 강사들도 이때쯤 되면 대목인 양 바쁘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잘나가는 몇 안 되는 유명인사급 탈북민들을 강사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편방송 특정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탈북민들은 전국구 강사들로서 매우 바쁘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면 다음해까지 잠잠해진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6월과 8월 이벤트 특별집회용 탈북민 강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 외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한국교회들은 탈북민에게 무심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북한선교 위해 기도하면서, 북한주민(탈북민)을 무시하는 한국교회

한국교회에게 탈북민들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피선교지로 알려진 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아시아 지역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탈북민들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바닥층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한국사람들은 상류층, 중하류층, 다문화층, 그리고 탈북민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동족인데도, 이주외국인들보다 더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통일은 그들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대다수의 교회가 선교부 안에 북한선교나 통일선교부를 두지 않고 있다. 왜 북한선교 혹은 통일 선교부를 만들지 않고 있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담임목사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담임목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성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갖지 않게 마련이다. 설사 평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더라도 교회적인 관심과 후원까지 갈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다. 필자

1 이 글은 필자가 “현대종교(2017년 4월, 제500호)”에 실었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재게재한 것임





가속한 지역 도시의 교단 7개 노회 가운데 북한 선교부를 설치하고 있는 노회는 3곳 밖에 없다. 4개 노회는 노회 소속교회들의 관심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장 소외되고 있는 탈북민들이야말로 선교대상에서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 탈북민선교에 적극적인 이단과 사이비종파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은 탈북민을 포섭하고 훈련시키고, 생활비와 장학금까지 지원하면서 그들을 끌어가는데 적극적이다. 얼마 전 필자가 잘 아는 탈북민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 대학원에서 부부가 함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북한 동족들에게 건강한 신앙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꿈이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이처럼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게 된 동기다. 그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탈북민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한국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을 소개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의외로 많은 탈북민들이 이단과 사이비종파에 속한 교회들과 사람들을 따라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함께 탈북한 고향사람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친구는 통일이 되면, 북한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선교사가 되어

헌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말한 교회는 신천지였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를 붙들고 몇 달이나 설득하고 설명하여, 지금은 신천지를 떠나 자신과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교회로 인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이 탈북민들에게 재정적 후원과 생활지원 등의 물량공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종파들로부터 훈련된 탈북민들이 북한을 점령할지도 모르겠다며 그 탈북민 목사는 걱정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에 경종이 되는 말이라 생각한다.

### 노골적으로 탈북민들을 흡수해 가는 이단들과 사이비종파들

신천지의 공식 홈페이지나 신천지 언론사, 신천지 신자들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살펴보면 그들이 북한선교와 중국선교, 특히 탈북민선교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중국 동북 3성, 그 가운데서도 심양과 연길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종교에 대해 전혀 무지한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신천지 관련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것이다. 박옥수 역시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저서를 중국에 잠시 거하는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배포하며 미혹하고 있다. 안식교는 북·중 경계지역에서만 아니라, 북한 내 NGO 활동기구로 가장하여 들

어가 빵 공장, 국수 공장, 평양에 유치원 지원 등을 통하여 북한 안에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북한선교 사업을 통하여 탈북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통일교 문선명은 김일성 생존 시에 김일성과 만나 북한 내에 자동차공장(평화 자동차)을 세워 주고, 보통강호텔을 운영하는 등 북한 내에 통일교의 활동반경을 전방위적으로 키워왔다. 현재 통일교에서는 통일이 되면 북한 전역에 통일교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1만명 정도의 통일교 북한선교사 후보자들을 훈련시켜 놓았다고 한다. 통일교는 탈북민들에게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갖고 접촉하여 이들을 통일교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남파간첩 출신 김신조씨는 김기동의 베뢰아에서 훈련받은 목사다. 김신조의 유명세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이 성락교회로 찾아간다고 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하고, 탈북민들을 돕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금 제공 탈북민선교가 이단들에게 역전의 화를 불렀다.

자기교회 신도들과의 대형 스캔дал로 기소되어 현재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재록씨가 답임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탈북민선교에 대한 열정도 주목해야 한다. 만민중앙교회는 매주 관광버스 수십 대를 동원하여 집 앞에서부터 실어 나르며, 탈북민들에게 개인별로 월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민들은 경제적 도움에 매료되어 줄줄이 따라가고 있다.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탈북민 한 분도 경제

적 지원에 현혹되어, 한 동안 만민중앙교회 부산 지교회에 출석하다가, 성도들의 설득에 힘입어 다시 돌아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의 북한선교 및 탈북민 선교의 특징은 엄청난 재정지원과 물량공세, 그리고 탈북민들의 생활보호 등 개인적인 돌봄을 통한 접근이다.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의 물량공세는 한국교회의 몇몇 대형교회들의 초기 탈북민 대응으로부터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민들은 대형교회들이 매월 혹은 매주 제공하는 생활비 보조금을 받으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교회로서는 사람들이 우선 교회에 나와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냐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돕는 생활비 지원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탈북민과 교회는 어느새 돈 주는 입장과 돈 받는 입장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시간이 갈수록 탈북민들은 신앙보다도 경쟁적으로 생활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주일에 몇 군데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이 교회별로 나누어 출석하면서 돈을 받는 현상까지 생겼다. 어떤 탈북민은 아예 직장을 찾을 생각도 안하고 몇 교회만 돌면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자랑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기성교회보다 더한 금전 공세로 탈북민들을 모으고 있다.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성 교회가 탈북민의 교회출석을 금전적 필요와 연결시켰던 방식의 부작용이 크다.〉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이것을 본 이단과 사이비종파 교회들이 기성 교회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탈북민들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종파 교회들이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돈이 기성 대형 교회들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탈북민들은 어차피 교회들은 자기들을 많이 불러 모아 숫자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니, 자기들은 돈 받고 자리 채워주고, 교회는 숫자자랑하니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서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금전제공 방식의 탈북민선교는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에게 금전공세로 역전당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 **북한선교는 탈북민선교에서부터 시작된다 금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탈북민을 품어야 한다**

세계선교 2등 교회가 자기 형제와 동족들을 4등 시민 취급한다면, 세계교회가 웃을 것이다. 통일은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4조)에 명시된 국가적 과제이다. 한국 교회의 필연적이며 역사적인 과제이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통일연습 대상자들로서의 탈북민들을, 단지 구제나 공훈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족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선두에 두어야 할 선교대상들이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복음화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와 봉사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단들이 오히려 재빠르게 탈북민들을 흡수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늦었다

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통일선교와 북한선교의 선봉장이 될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보살피고, 복음화해야만 한다. 이단과 사이비종파들에게 빼앗긴 탈북민들도 되찾아와야 한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복음화하여 2300만 북한동족 복음화를 위한 모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 **각 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깊이해야 할 뿐 아니라, 최우선의 선교대상자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선교는 북한 세습 독재자 김정은과 그를 추종 옹위하는 정권의 권력자들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탄압받고 핍박받는 북한동족과 주민들,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여 내려온 탈북민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선교대상으로 삼고 다가가야 한다.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른 돌봄과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을 인간답게 대해 주는 것이며, 형제애를 갖고 함께 해 주는 것이다. 이것들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며,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이단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탈북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의 동족들을 다시 교회의 품으로 되찾아와야만 할 것이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다. 탈북민들을 이단자들에게 이대로 방치해 두면, 한국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종말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 중국교회 이단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 자칭 ‘전능하신 하나님교회’(全能神敎)

김 아모스 (선교사)

현재 한국과 중국 등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교회(全能神敎)’는 일반적으로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로 알려진 중국에서 자생한 중국교회 이단이다.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하여, 초창기에는 농촌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점점 포교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대도시에서도 창궐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미주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서 중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국외지역의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들의 주요 이단사상과 교리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평해보고자 한다.

## 1. 동방번개파에 대한 이해

### 1. 이름

이들은 동방번개파라는 이름 외에 칠영파(七靈派), 재림구주파(再臨救主派), 여그리스도파(女基督派), 전능신교(全能神敎) 등의 이름을 가지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교회(全能神敎會)’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안상홍증인회’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2. 시대의 구분

동방번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신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6,000년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서 6,000년을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여러 특징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대를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와 국도(國度)시대로 구분하고 국도 시대를 다스릴 자가 “전능한 신” 곧 ‘여 그리스도’라고 한다. 다음의 <표 1>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 3. 동방번개파의 출판물

동방번개파는 방대한 양의 출판물을 발간하여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말씀이 육



구분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신의 성격	은밀함	자비, 관용	공의, 위엄, 노함
신의 이름	여호와	예수	전능자
신의 성별	무	남	여
사역하는 지점	이스라엘	유대지방	중국
성령과 육신의 관계	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인의 형상으로 나타남	성령이 다시 중국인의 형상으로 재림함
신이 하는 일	인간의 지상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함	대속하고, 자비롭고 궁휼히 여김	정복, 공의로움, 노함, 순복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 사탄을 완전히 정복함
사람이 해야 할 일	율법을 준수	그리스도를 영접	‘여기독(女基督)에게 순복

〈표 1, 동방번개파의 시대 구분〉

신으로 현현하다.(話在肉身顯現)’와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東方發出的閃電)’를 포함하여 약 25종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 출판물들은 크게 3 종류로, 첫째 교리적 성격의 신계시(新啓示)<sup>1)</sup>이며, 둘째는 시나 찬송의 형태를 갖고 있는 신시가(新詩歌)<sup>2)</sup>이며, 셋째로 지침서 내지는 행동요강이라 할 수 있는 ‘신책략(新策略)’<sup>3)</sup>이다.

1 신계시(新啓示) 성격의 출판물로는 1) 活在肉身顯現 2) 東方發出的閃電 3) 教主早已駕云重歸 4) 神向全宇發聲 5) 審判在神家起首 6) 聖靈末世的工作 7) 聖靈向衆教會說話 8) 再光中行走 9) 神的說話與人的交通 10) 那靈在說話 11) 基督的發表 12) 嗎哪 13) 你聽見神的聲音了嗎 14) 七號已經吹响 15) 神在末世的發聲 16) 神隱秘的工作 이 있다.

2 신시가(新詩歌) 성격의 출판물로는 1) 國度的讚美 2) 跟着羔羊唱新歌 3) 全能神, 你真好 4) 眞理聖詩精選 이 있다.

3 신책략(新策略) 성격의 출판물로는 1) 新的發聲 2) 實爲 3) 關於實行眞理的交通與問題解答 4) 東方閃電摸底鋪路細則 이 있다.

## II. 동방번개파의 이단사상

### 1. 동방번개파의 성경관

이들은 성경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遺物)로 여기고 자신들이 출판한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와 같은 책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너는 오늘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새로운 것이 없고, 다 낡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없다. 임시 참고자료나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큰 사용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자체가 ‘유기적 영감’을 자증(自證)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딤후 3:16), 오직 성령의 감동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 3. 동방번개파의 기독교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며, 십자가상의 구속사역도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불완전한 구속사역을 동방번개 자신들의 교주인 재림한 ‘여(女)기독’이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다. 하나님과 동등 된 분이시지만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죄 없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사역은 완벽하며 유일한 것이며, 그 어떤 것의 보충도 필요치 않는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셨다.

### 4. 동방번개파의 구원론

이들은 성령이 위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이들은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사용하는 도구(工具)라 지칭”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 대신에 오직 동방번개파에 속하여 그들의 교리를 믿고 ‘여(女)기독’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죄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교훈한다.

### 5. 동방번개파의 종말론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중국 땅에 여성의 몸으로 재림했으며, 재림한 그녀가 곧 동방번개파의 교주<sup>5</sup>라고 하며, 여교주를 ‘여그리스도(女基督)’으로 칭한다. 그녀는 마태복음 24장 5-8절의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 전쟁, 기근, 환난을 통하여 만민을 심판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 1) 동방번개파는 재림예수를 ‘여성’이라고 주장

이들은 창세기 1장 27절과 예레미아서 31장 22절을 이용하고 있다. 본문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에서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이 일차로 남성(男性肉身)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남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옳은 것이고, 다시 여성(女性肉身)으로 오신 것은 본문 중에서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동방 번개파는 재림예수가 ‘중국 땅으로 재림’했다고 주장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에서 “동편東便, 동방東方)은 바로 ‘중국’이고, 서쪽은 중국이 아닌 외국을

5 여교주는 일반적으로 등(鄧)씨 성을 가진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2012-12-21 中國網絡電視台가 사진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는 양향빈(楊向彬)으로 되어있기도 하다.



〈2018년 8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중국 전능신교 피해자 가족들이 방한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 난민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표하는 것으로, 다시 육신을 입고 도성육신(道成肉身)한 ‘여 그리스도’가 중국으로 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동편(東便, 동방東方)은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지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야 41장 2절의 동방(東方)은 일반적으로 남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고레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본문에 나오는 동방은 어느 경우라도 중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울러 동방번개가 인용한 창세기 1장 27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분명하다. 어느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22절은 바로 앞의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라는 말씀이 오랜 포로생활 가

운데 실의에 빠진 자들에게 귀환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임을 알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글을 맺으며

동방번개파의 주요 이단 사상과 교리들을 살펴해보았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보는 사상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정통교리와는 상반되거나 교리자체가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진 이단이 분명하다, 성경자체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성경을 자신들의 근거로 제시하는 모순과 아울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경성하여 진리로 무장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종교사무조례의 강력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외중에 이단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하는 중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김종구.『중국교회 이단 동방번개』(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1)을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 2) 송영목. “‘동방번개파’의 종말론 비판”.『개혁논총』2014년 여름호(총권 30호): 159-194.
- 3)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Michigan: Grand Rapids. 1933.



## 신앙의 자유를 찾아 (4)

●  
마리아

인신매매로 중국 외지로 팔렸던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을 주님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주셨다.

가까스로 그 산골에서 탈출을 하고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거취를 고민했다. 원래는 결혼을 다시 해야 겨우 지낼만한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강제 결혼으로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다시 다른 중국 사람에게 팔려간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대신 조용히 지내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호구도 없는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나의 탈출을 도와주신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양딸처럼 데리고 돌봐주시고 자기 집에 함께 살자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덕분에 나는 다시 팔려나가지 않고 그분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두꺼운 책을 건내시면서 이런 책을 본적이 있느냐고 여쭙보셨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태어나서 한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성경을 본적도 읽은적도 없었던 나에게 아주머니는 교회에 가면 좋다면서 나를 조선족 교회에 데리고 가셨다. 그 당시 아주머니도 신앙심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족이 귀한 그 지역에서 다른 조선족 분

들과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본인도 참석하시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가셨던 것이다.

난생 처음 방문한 교회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 투성이었다. 특히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북에서 주체사상을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학습받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당연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외진 동네에 이렇게 조선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뽕 돌리는 것 같이 시원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말을 떠듬거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가 편하게 말이 통하는 상대가 있으니 확실히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신앙심은 없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다. 남한에서도 익숙한 ‘반드시 내가 너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복음성가나 ‘나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날따라 그 노랫말과 음율이 마음에 다가왔다. 3살 5살 두고 온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고, 엄마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처지에 마음이 아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찬양가운데 경험하면서 나



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읽고 마음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주님 안에서 불안한 타향생활을 하는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

이런 나에게 교회 식구들은 편견이나 배척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 집사님들은 프린트로 책을 만들어서 수요일 오후마다 나에게 성경공부를 시켜주셨다.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셨고, 우리 고향땅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길 함께 기도했다. 후술하겠지만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기업 식당에서 일하며 기숙사에서 지낼때도 그 먼 길을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조건없이 사랑해주셨다. 교우들의 사랑이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처음 일자리는 교회를 통해 소개받았다. 중국의 흔한 양꼬치구이집의 주방이었다. 그렇지만 겨우 열흘밖에 일하지 못했다. 접대하는 중국 아이들이 전달하는 메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시 언어적인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 다시금 교회에서 한국 식당의 주방을 소개받았다. 언어의 불편이 없으니 훨씬 일하기 좋았다. 다니던 교회가 식당과 가까워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틈틈이 교회에도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일을 시작한지 약 2달 정도 지난 어느날이었다. 갑자기 식당에 공간이 들이닥쳐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시작했다. 공간이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부엌에 있던 나에게 식당 사모님이 급히 들어오셔서 빨리 피하라고 하셨다. 너무 놀라 바로 앞치마 벗고 허둥대다가 손님인 것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 즉시로 집으로 도망가서 언제라도 피할 수 있도록 짐을 쌌다. 다행히 그 이후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나의 처지가 확연히 실감되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다시 그 식당으로 일하려 가기란 불가능해졌다. 기껏 구한 직장을 또 이렇게 놓치게 된 것에 상심이 되었지만, 다행히 다른 탈북한 친구가 좋은 식당자리를 소개시켜주었다. 조선족 분이 하는 회사 식당이었다. 이번 회사는 비록 보수는 크지 않았지만 기숙사도 마련해주시고 언어적으로도 불편이 없었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게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다만 벌이가 부족한 만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 새벽 2시에 자전거타고 40-50분을 달렸다. 그곳에 가서 주방장님의 조수 역할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동시에 음식도 배웠다. 그렇게 아침 7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아침식사가 끝나는 10시에 걸으면 아침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오전 일을 마무리하고 회사 식당에 출근해서 회사 점심을 만들었다. 오후에는 동네 당구장 사장님 집에 가서 도우미 일까지 했다.

나는 내 상황에 별 불만이 없었지만 양어머니처럼 날 돌봐주셨던 조선족 아주머니께서는 다른 생각이셨다. 적은 보수에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내 모습이 너무 고생스럽다며 걱정하시

던 아주머니는 나에게 그 직장 대신 보수가 좋은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하셨다. 그리고 도우미 일을 하던 당구장 사장님의 소개로 한 한국 회사의 면접 보게 되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 탈북자를 고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였다. 듣자 하니 이전에 일하던 분도 탈북자였는데 일을 아무지게 잘 하셔서 평판이 좋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나는 새롭게 한국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회사는 사장님 포함 서너분의 한국 직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중국 아가씨들이었다. 밥을 먹는 젊은 아가씨들 모습에 왠지 두고 온 자식들이 아른거려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애를 썼다. 평소 통명스럽던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익숙했던 아가씨들은 살가운 나의 태도에 마음문을 열었고, 나는 중국 아가씨 직원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다. 물론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회사에서는 사장님 등 일부 외에는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직원들은 나를 조선족 아주머니로 알고 있었다.

회사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교회가 멀어진 터라 예배 참석이 어려워졌지만 나는 그 곳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이어갔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출석했다. 지금도 성탄절날 울동 대회 나갔던 일이 참 기억에 남는다. 작년 12월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버스를 탔는데 입이 딱 벌어졌다. 내 기억보다 거리가 꽤 멀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주님의 은

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다. 생활도 만족스럽고 마음에 여유도 있었다. 또 봉급도 넉넉해서 가능한 사람을 통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어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기억으로는 노동절 명절이 끝난 다음날 아침으로 기억한다. 그 날은 타 기업 견학이 있어 반장 이상 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고 몇몇 직원과 차장님 한 분만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나는 식당에서 식료품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수위 아저씨가 중국말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당황스럽게도 공안 2명이 수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공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놀랄수 밖에 없는 내 처지였지만 짐짓 태연하게 나를 왜 찾았는가하고 물었다. 공안은 나에게 ‘밥하는 아줌마냐 물어볼 것 있다.’ 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돼지 관련 질병이 돌아서 시장에서 해당 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혹시 돼지고기 쓰고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이었다. 찻잔한 마음은 있었지만 식품 위생 관련 일로 온 것으로 보여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다. 그러자 공안은 주방에 들어가보자고 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안내하니 대뜸 내 중국어 억양을 지적하며 ‘억양이 사투리 쓰는데 그 동네 말 같지 않다. 어디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나는 조선족 행세를 해야 했기에 연길 사람이라고 말을 둘러댔지만 공안은 거주증을 보자며 계속 나를 추궁했다. 거주증을 발급받으려면 파출소를 들러 확





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호구도 없으니 거주증이 있을리가 없었다. 집에 놓고 왔다고 계속 돌려했지만 공안은 기어코 파출소에 가서 거주증을 확인하자고 했다. 위생검사를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잡으려 온 것이다.

꼼짝없이 파출소에 갈 수밖에 없게 된 나는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차장님은 사장님도 없는 데 어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몹시 걱정하셨다. 혹시나 내가 아주 잡혀갈까 걱정하셨다. 차장님께서 급하게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하필 견학 중이라 전화기가 대부분 꺼져 있었다. 공안의 독촉에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발 바꿔 신고, 핸드폰만 들고 공안을 따라 파출소를 갈 수밖에 없었다.

파출소에 가니 공안은 내 이름과 지역을 조회해보기 시작했고, 당연한듯이 제대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파출소에서는 공안과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안은 솔직히 말하면 도와준다면 나를 구슬리기 시작했고,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었다. 그렇지만 잡아떼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인가... 공안은 내가 살던 기숙사에서 평소에 내가 꼬적이던 종이를 구해왔고 인근의 조선족 사람을 불러 번역을 시켰다. 거기에는 나의 처한 처지와 진솔한 심정이 적혀있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공안국에 전달되었다. 나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그때 우리 사장님의 전화가 왔다. 나는 사장님

께 “마음의 준비는 되었어요... 감사했고 미안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사장님은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는 이르다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얼마 후 파출소 창문으로 사장님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아마 이곳 저곳 알아보면서 나를 구할 방법을 찾는 중이신듯 했다. 생면부지인 나를 생각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그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감사했다.

파출소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다. 제대로 말하라는 공안의 호통이 이어지고 심문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여자 공안이 나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옷에 달린 별을 보니 딱 보아도 높은 직위에 있거나 상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조선말로 대뜸 “당신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추궁했다. 조선말로 나를 추궁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제는 안되는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결국 북한에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북에서 왔다고 인정하자 나머지 조사는 간단하게 끝났다. 나는 이제 잡혀가는 처지가 되었다. 회사에 사무실에 일하는 조선족 장 아주머니께 내 기숙사 방에서 간단한 사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장 아주머니는 큰 가방에 옷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담고 나에게 갖다주었다. 장 아주머니는 가방을 건내며 평평 울었다.

그 집을 받아들고 중국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집을 챙겨주신 장 아주머니하고 회사의 김 차장님이 오셔서 바래다주겠다고 공안에게 문의를 했고, 공안차에 탈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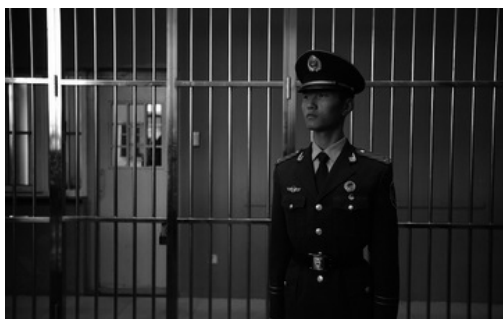
다. 그저 목이 짝 매일 뿐이었다.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없는, 생존의 기약 없는 길임을 알기에 서로 울기만 했다. 그 와중에 장 아주머니는 “왜 자기에게 말 안했나… 내가 알았으면 빼돌려서 회사 식당 말고 가정부 같은 일이라도 소개해서 들키지 않게 했을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한 시간 넘게 달리던 차가 멈췄다.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장아주머니와 차장님은 나를 안고 우시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울음이 터졌다. 차장님은 중국 돈 2천원을 주시면서 혹시 모르니 챙기라고 하셨지만 미안한 마음에 못받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 약간만 받았다. 차장님은 나에게 꼭 살아서 다시 오라고 물기 가득한 눈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애쓰셨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사장님께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으셔서 못나오셨다고 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잡혀가는 와중에도 위로가 되었다.

구치소에서는 약 12일동안 구류되어 있었다. 구치소에서는 복송의 스트레스가 심했다. 정확하게 어떤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어볼 곳도 없으니 ‘돌아가면 총살이라도 당하는 것 아닐까?’ 하며 답답한 마음에 전전긍긍했다. 구치소에서는 식사로 빵을 배식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도 안되고 평소 먹던 밥이 아니다보니 나중에는 구토가 났다. 구치소 측에서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했는데 구치소 빵으로는 안될 것 같다고 나에게서 챙겨온 돈이 있냐고 물었

다. 감옥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야 알았다. 가진 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함께 교회 다니던 교우분 한 분의 연락처가 생각나서 전화로 5백원 정도 부탁드렸고, 빵 대신 다른 먹을만한 음식을 사먹을 수 있었다. 나중에 보니 장 아주머니께서 옷가방을 싸주실 때 내 지갑도 챙겨서 구석에 넣어주신 것을 알았다. 감옥에서도 돈이 요긴한 만큼 잘 챙겨놓았다. 중국 구치소 생활은 불편했지만, 북한의 수용소에 비교하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할 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창살 틈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일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 ‘이 순간 새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래도 우울하게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나름대로 쾌활하게 지내려고 애썼다. 함께 갇힌 중국 죄수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 하루는 휴식시간에 중국 죄수들에게 “내가 노래 한 곡조 뽐으면 들어보겠는가?” 했더니 한번 해보라며 명석을 깔아주는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신문 말아서 마이크처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아마 한국가수 김종환씨의 ‘백년의 약속’ 이었던 것 같다. 다들 깔깔거리며 잘부른다고 좋아했다. 그렇게 노래 한 곡을 끝나치고 분위기가 흥겨워지는 그 때 갑자기 철문이 열리고 간수가 품을 잡으며 들어왔다. 간수는 ‘○○○, 앞으로 나와!’ 하며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죄수들 앞에 나를 세우고는 철창 안에서 노래하고 웃었다고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몰랐다고 언어가 서툴러서 그렇다고 하니까 간수는 짐짓 큰 아량을 베풀었다는 듯이 한번만 특별히 용서해주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위기일발의 상황을 넘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른 죄수들이 “간수들도 카메라로 재미있게 봤으면서 괜히 들어와서는 뭐라 한다”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짧은 구치소 생활이 끝나고 나는 다시 이송되었다. 점점 국경 근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복송되는 것이다. 봉고차 크기의 이송 차량에 앉았는데 내 옆에 17살 여자 아이가 앉았다. 계속 울먹이던 이 아이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양강도의 한 마을 이름을 이야기했다. 새파랗게 어린 아이가 그간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고 결국엔 17살의 나이로 복송길에 끌려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매어졌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지역을 거쳤다. 차 안에서 나는 감옥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갑에서 돈 일부를 챙겨서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조그마한 비닐 쪼가리에 꼼꼼히 싸서 몸 안에 숨겼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내가 뒤에서 꿈틀꿈틀 하니깐 그런데 그 운전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나와 같이 이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경으로 보내졌을까?

중국은 참 넓은 나라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이어졌다. 봉고차로 이동하던 우리는 뒤이어 2층짜리 침대기차를 타고 이동했다. 물론 침대 기둥에 수갑이 채워진 체였다. 문득 내가 챙겨온 옷중에 한국 라벨이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나 북한에서 발견되면 꼬투리 잡힐까 싶어 그 옷들을 창문 밖으로 다 버렸다. 도통 잠을 이룰 수 없고 머리속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영커 정신이 없었다. 멀미 증상까지 보여서 부탁해서 수면제를 받아먹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긴 시간 이동한 끝에 조중 국경 인근 변방대에 도착했다. 나는 인솔해온 공안에게 핸드폰과 케리어 등 내가 들고갈 가방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다 가지라고 주면서 대신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안은 물건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비록 짧은 시간만이었지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교회 집사님들부터 해서 나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께 전화를 돌렸다. 전화 드린 집사님들마다 말을 잊지 못하고 영영 우셨다. 나를 마지막까지 배웅했던 장아주머니께도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하는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시간이 없으니 길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별의 통화를 나눴다.

변방대에서는 보통 인원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데리고 북한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나에게서 물품을 받은 공안이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이 변방 대장을 잘 안다면서 당일에 내보내게 하겠다고 했다. 변방대에서는 내가 숨긴 중국 돈이나 금불이가 있는지 몸 검사 다 하고는 다른 한 여자 2명하고 같이 차를 태워서 북한으로 출발했다. 함께 탑승한 통역원이 북한을 가리키며 “저기가 너희 조국이다” 라고 하는데 조국이라는 단어가 수갑을 찬 죄인인 내 처지와 겹치면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내 고향 조국에 죄수로 끌려가니 이 마음이 비길 곳 없었다. 그 와중에 같이 복송되는 옆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저기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러고 있었다. 북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 다리를 건너고 점점 가까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서글펐다. 

## + 시진핑 방북… 제 5차 북중 정상회담 개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1박 2일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10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게 북·중 양국의 열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 대화 필요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선(북한)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나서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유관국은 미국을 가리킨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미협상의 재개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안전보장 측면부터 경제 분야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김 위원장도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경험을 배우겠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우선 경제·민생 분야의 간부 교육 및 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날 시 주석의 수행단에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 경제 분야 각료들도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 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의 총괄 책임자들도 참석한 만큼 경제협력의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 + 김정은, 트럼프 친서 받아...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 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았으며, 친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매체가 6월 23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온 시점과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어 이번 친서는 그에 대한 답신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17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어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고 20일 타임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취재진과 문답을 하다가 "어제 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

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김 위원장의 두 친서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친서에 대해 답신을 보낸 것인지도 현재로서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라디오, 조선중앙TV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 사실을 공개했다. 북미회담 교착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북한 매체가 별도 기사로 다루고 대내외 매체에 모두 공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23일(현지시간) "(친서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데 좋은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아마도 아주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이 준비됐음을 보여준다면 "말 그대로 당장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 미국무부, 北·中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6월 20일 북한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올해로 17년 연속, 중국은 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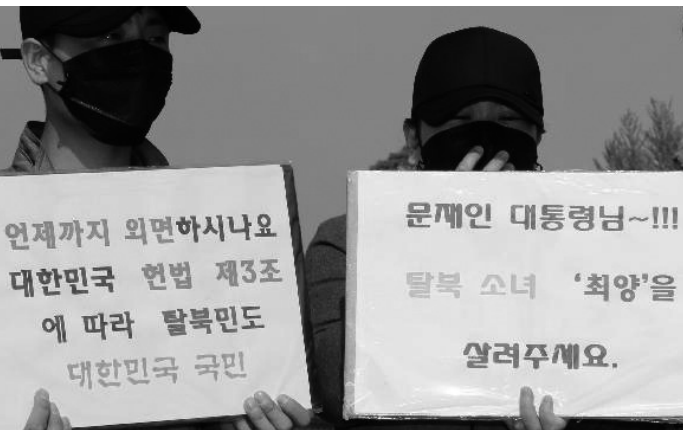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나라에 매겨진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매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

고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또 북한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송환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아동을 동원한 강제 노역, 수용소 훈련, 해외 기업으로 강제 노역 수출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도 3년 연속 3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도 북한과 계약을 맺고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이유로 3등급에 포함됐다. 이외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총 21개국이 3등급 인신매매 국가 명단에 올랐다.

## + 중국, 탈북자 단속 강화… 두달간 30명 대량 검거



〈5월 1일 오후 중국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소녀 최양의 부모와 탈북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두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탈북자 30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6월 17일 로이터통신은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삼엄해지고 있다면서, 탈북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이 아직 추방(북송)된 정황은 없으나,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인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로이터는 탈북자 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시단속으로 인해 브로커, 지원 단체, 중간책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적인 탈북 네트워크가 활동에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활동가들은 최근 중국 당국이 벌인 단속 대부분이 탈북자가 자주 체포되는 북한 국경의 '레드존'에서 벌어졌으며, 안전가옥 두 곳까지 단속 대상이 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우리나라 당국 통계를 인용, 실제로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체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2011년 2,706명에서, 지난해에는 1,137명으로 감소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입국인원 감소세가 부분적으로 북한과 중국 당국의 강화된 보안과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로이터에 “지난 1년간 북중 국경에서 더 많은 감시카메라와 초소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이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중국 내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 지원 활동가는 자신의 단체 네트워크는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네트워크가 표적이 되고 안전 가옥들까지 습격당하는 상황에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단속 탓에 중국 당국이 북한 정보 당국의 도움을 받아 탈북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참고: 로이터 통신, 한국일보 6월 17일〉

## + 북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첫 통보



북한 농업부가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5월 23일 "자강도 우시군 북산농장에서 발병했다는 신고 접수 후 이들 돼지에 대한 실험실 검사(PCR) 결과 25일 최종 ASF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확진 당시 전체 77마리 가운데 55마리는 이미 폐사했으며, 나머지 22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고했다.

자강도 우시군은 중국과 압록강을 마주두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된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훈장구와는 150km 떨어져 있다. 북한이 ASF 발병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은 아시아에서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다음으로 5번째 ASF 발병국이 됐다.

노동신문은 6월 12일 '방역이자 생산'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비루스(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수의비상방역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농업성 수의방역 부문 일꾼들, 여러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 책임일꾼들은 축산물 생산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ASF는 사람에게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치료 약도 개발되지 않아 확산 시 북한의 양돈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OIE에 따르면 북측 당국은 ASF 확진 이후 이동제한 조치, 관련 축산물 폐기·처분,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측의 방역협력 의사 타진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 + 북한 최대 쌀생산지 황해도 가뭄 심각...모내기 어려움



〈가뭄 피해 전하는 북한 TV (연합뉴스)〉



〈말라버린 북한 협동농장의 밀밭 (연합뉴스)〉

북한에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도의 모내기 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쌓이고 있다. 모내기가 늦어지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6월 5일 '자연과의 전쟁에 결사의 각오를 안고 펼쳐나섰다'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황해남도 안의 적지 않은 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여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강령군에서는 올해에 비가 거의나 내리지 않아 수십 개의 저수지에 물을 4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은률군에서는 대동강 수위가 정상수위보다 낮아져 양수장에 흘러드는 물량이 줄어들어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미는데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이날 황해남도의 가뭄 상황을 보도하면서 "지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들과 대동강의 수위가 낮아져 배천, 연안, 강령, 웅진, 재령, 안악, 신천을 비롯한 도

안의 전반적인 군들의 모내기 일정계획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극심한 가뭄으로 황해남도 강령, 웅진, 벽성, 은률군의 농장들에서 모내기에 지장을 받고 있어 내각의 성(省)과 중앙기관의 공무원(공무원)들도 모내기를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벼모내기가 한창인 서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5월 강수량을 종합한데 의하면 평양시, 남포시, 황해남북도,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64.7~100.2mm로 평년의 37~46.3%였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5월부터 연일 가뭄 피해를 보도하면서 주민들에게 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5월부터 6월 초까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남부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모내기에 필요한 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 연합뉴스, 6월 5일〉



## + 스페인 국가정보국 “北, 지난해 사이버 공격 가장 많아”

스페인 국가정보국(CNI)은 지난해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주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스페인 국가정보국(CNI) 산하 ‘국립암호센터 침해사고대응팀’이 최근 공개한 125쪽짜리 ‘2019 사이버 위협 및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스페인에서 총 3만 8천29건의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사건 중에서 2.7%가 치명적으로 매우 위험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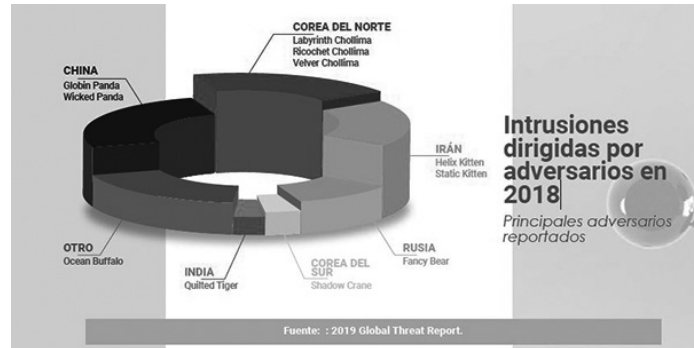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많은 공격을 감행했다”며 “‘래버린스 천리마’(Labyrinth Chollima), ‘리코쳇 천리마’(Ricochet Chollima), ‘벨버 천리마’(Volver Chollima) 등 북한의 3개 사이버 공격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 한국, 인도(인디아), 중국 등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북한과 인도(인디아), 브라질, 베트남(월남)으로부터의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특정 국가의 후원을 받는 조직’들이 가장 위험한 사이버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특정 국가의 후원을 받는 조직’들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집단들이 개인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행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인 이스트시큐리



〈스페인 국가정보국(CNI) 산하 ‘국립암호센터 침해사고대응팀’이 최근 공개한 사이버 위협 및 동향’ 보고서〉

티는 13일 “그동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이버 공격집단 중 하나인 ‘코니’(Konni)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수키’(Kimsuky)와 공격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코니’와 ‘김수키’가 사용하는 여러 악성코드의 변수명과 파일명, 코드 유사도, 설정 암호, IP 주소 등이 매우 흡사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충분히 두 공격 조직이 특별한 관계이거나 유사성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키는 한국 내 외교, 안보, 통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의 수사당국은 한국의 전력, 발전 분야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조직으로 김수키를 지목한 바 있다. 〈참고: SPN 뉴스, 6월 14일〉

## + 램버트 “네팔, 북 사이버 범죄 온상 우려”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가 네팔을 방문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네팔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기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팔 현지언론인 ‘히말라야 타임스(the Himalayn Times)’는 지난 6월 15일 네팔을 방문한 램버트 부대표가 네팔 의원들과 고위 정부 관리들을 만나 네팔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램버트 대표를 만난 한 네팔 의원의 말을 인용해 램버트 부대표는 특히, 북한이 네팔을 사이버 범죄의 기지(base)로 사용할 수 있다며 네팔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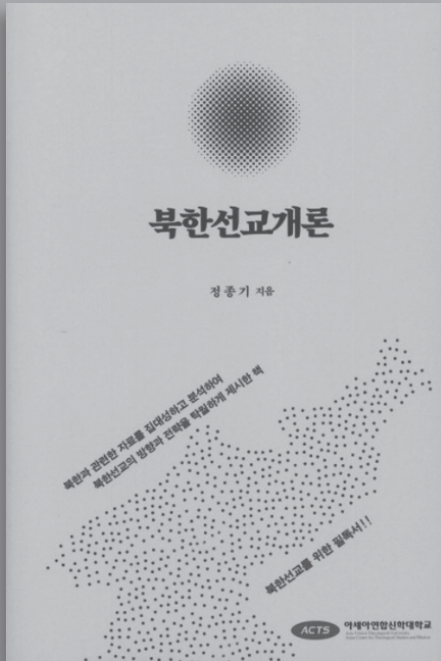
네팔 현지언론인 ‘안나푸르나 익스프레스

(Annapurna Express)’는 지난 5월 5일 네팔에 거주하는 수백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는 4개의 북한 식당과 2개의 북한 정보통신 회사, 1개의 북한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북한 국적자들이 네팔에서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허가증 없이 일하고 있다.

또 다른 네팔 현지언론인 ‘카바르허브(Khabarhub)’은 지난 4월 6명의 북한의 해커들이 카트만두의 한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직후 지난 5월 국무부의 데이빗 란즈(David Ranz) 남·중양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네팔을 방문해 네팔 내 무부 장관을 만나 사이버 공격 등 네팔에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네팔은 1974년 5월 북한과 국교를 맺었는데 카트만두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은 그동안 사이버 범죄, 금 밀매 등 불법활동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55년 유엔 회원국이 된 네팔은 17일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RFA, 6월 17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선교개론

저자: 정종기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출판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가격: 35,000원

‘북한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지역학의 일종이다. 국내 몇몇 대학들은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하여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옛날에는 북한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또는 사상이 불손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른다. 또 언어도 같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한민족을 지역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고, 이러한 무지가 현재를 넘어 미래의 한반도 정세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단순히 학문적 필요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산화 이전 한반도 기독교의 뿌리였던 북한 교회의 복음의 유산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하나된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부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시선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북한의 모습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 선교적 관점에서의 북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아연합신학교(ACTS)는 1998년 북한선교학과를 개설하고 북한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를 선교적 관점에서 진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노력해왔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선교개론’은 ACTS 북한연구원 연구교수이자 기독교 통일포럼 사무총장으로 북한 및 통일 선교 활동에 애쓰고 있는 정종기 교수가 정리한, 대학에서 실제 활용하는 교과서이자 개론서이다.

책을 받아서 살피면서 들었던 첫 인상은 역시 대학 교과서다운 상당한 두께였다. 선교의 의미와 북한선교의 성경적 이해에서부터 북한 지리, 정치, 사상, 문화 등 북한 전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북한 교회 및 선교 역사, 그리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도 포함하고 있는 등 내용의 충실함이 돋보였다.

기존에 공부하고 참고할만한 북한학 및 북한 관련 저서들은 아무래도 학문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다루다 보니 배운 내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교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사상적 편향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북한과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기 관점이 잘 세워진 독자라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성도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선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북한을 조망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기존일반 도서를 읽을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독자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나 도전적인 내용을 주로 하지는 않는, 어찌보면 딱딱한 학술적 인책이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도전적인 간증도 필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통일을 준비하자, 북한과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공부하자’고 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자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이기에 이러한 종류의 개론서가 활용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꼭 북한에 대한 사명감이나 관심이 아니더라도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복음적 관점에서의 북한 이해에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읽을 만한 책으로 ‘북한 선교 개론’을 추천해본다. 



## 북한 기도 제목

1.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 현장과 통일 사역 가운데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평화의 사도를 가장하여 자신들의 이미지를 꾸미고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에 진출할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이름 아래 가려진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들의 활동이 제한되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통일과 북한, 탈북자들에게 무감각하고 외면해 왔던 것이 결국 이단과 사이비가 관련 분야에서 활개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 반성해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통일을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북한 방문으로 국제 정세는 한층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미중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핵이 확실한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강대국의 힘의 대결에 희생되는 것이 아닌,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성도들이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 수감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잔인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북한의 인권 탄압 중단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이 신앙인이었다는 이유로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또한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6.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특히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뭄 등으로 제때 모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 앞으로의 식량 사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그 땅에서도 소외된 낮은 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 도움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근래에 북중 관계 발전 속에 중국 내에 탈북자 색출 및 체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먼저 체포와 북송의 위협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책이 바뀌어 각종 위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현장의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전 가운데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5월 1일



**2019**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